



폭염에도 농축산물 안정생산 차질 없도록 '현장 기술지원'

- 농작물 생육 저하 예방·병해충 확산 차단, 가축 집단폐사 최소화 기술지원
- 고온해 전망·농장 단위 기상정보 등 참고해 자발적 관리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노지 및 시설재배 농작물의 생육 저하, 병해충 확산, 가축 집단폐사 등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5월부터 여름철 기상재해(집중호우, 폭염 등)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 및 주산지 농작물 생육 상황을 수시 확인(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정기 현장점검에 나서 작황을 살피고 현장 문제점 파악과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5월 20일~9월)

특히 5개 반(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120명으로 중앙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하고 주산지 생육 점검과 기술지원에 주력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6~7월에는 전국 70개소 주산지에서 동시에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농축산물 관리 기술을 지도했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에는 추석 전후로 출하할 과수, 채소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작물 시듦, 과수 햇볕 데임(일소), 닭·돼지 폐사 예방 기술과 고온기에 확산하는 진딧물, 총채벌레, 탄저병, 무름병, 역병 등의 사전방

제와 관리 방안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과수 탄저병 확산으로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었던 만큼 대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 방제 기술을 집중 전파할 방침이다.

농가에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다 일조량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농작물 생육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병해충 예방관찰(예찰)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는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이 없도록 깨끗한 물 공급, 시설 소독 철저, 청결한 사료 관리, 환기 장치나 냉방시설 점검 등을 수시로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농업 기상, 병해충 발생·예찰 결과, 농업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182만 명에게 기상 상황별 농작물 관리 방법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농작물 생육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을 벌일 방침이다.”라며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여름철 폭염(고온)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 안내문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담당자	지도관	박승무 (063-238-1051)

3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1. 폭염이란?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 폭염 특보 기준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일최고체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급격한 체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3. 사전 준비사항

-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무단히와 관련한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
- 창이 낡은 묘지 착용하고 샌드리 등 지저분 차단을 할 때 주의
- 나무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4. 농작업 중 준수 사항

날/물 등 관리 작업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
<p>그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용 박해물 농기계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고온인 장소(농사방앗간)를 마련 - 고온이나 저온으로 작사(농사)를 피하고 물뿌리기에 유의 - 작업기를 충분히 수습하고 마다나, 도자, 음모수대 등 비닐을 벗겨 	<p>비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로도 관리를 정하며 일할수록 이내로 휴지(휴식)를 하여 조치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 습도를 비지 ② 미온공기(정제) 없이도 국산(냉장)자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환기(환풍기, 선풍기,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③ 안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를 관리
<p>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p>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p>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작업 시간과 조정 ② 작업도 및 속도 등 업무조정 ③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무더위 시에는 30분이 휴식(휴식)을 하며, 휴식(휴식)은 20~30분 정도 휴식(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p>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작업 시간과 조정 ② 작업도 및 속도 등 업무조정 ③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무더위 시에는 30분이 휴식(휴식)을 하며, 휴식(휴식)은 20~30분 정도 휴식(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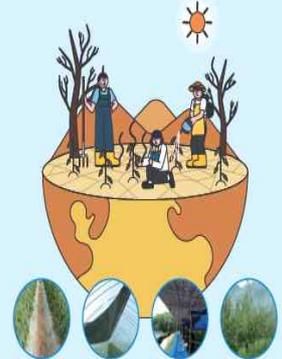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농업기술상담 : 농촌진흥청(1544-8572),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정보 :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www.rda.go.kr

여름철 폭염(고온)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작물 · 시들음, 잎과 열매가 타는 증상, 각종 생리장애와 병해충 증가
가축 · 식욕저하, 발육부진, 질병 등의 피해 발생



1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1. 비

- 관개용수가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통해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흠수가 억제되는 구간과 갈증을 시비한다.
- (사전) 물을 끌고 관수하여 증발산량을 위한 식물체 온도 상승 억제
- (사후) 물 흘러대기, 중산 균형유지를 위해 물대기 지양
- 비 성역 최고온도: 감수분열기 38℃, 개화수정기 35℃
- 비 고온장해는 개회기(여름시기) 감수분열기(유수형성기) 최고분열기 순으로 큼

2. 발작물

- 갈, 부직포, 비닐 등을 이용하여 토양을 덮어준다. 김매기를 통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흠표면을 굽어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한다.
-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 주 1~2회, 토양 15cm까지 관수
- 폭염 지속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방제를 실시한다.
 - 어린 해충(유충) 유주로 아침 8시 이전이나 늦은 오후에 일 뒷면을 방제한다.

3. 채소·과수·인삼

- [양파] 관수 실시로 토양 적습을 유지하고 생육부진 시 작업면비를 실시한다.
- [배추] 논지작물은 축적비닐 차광막 등으로 고풍을 피하고, 비가림 재배 표정은 차광막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한다.
 - 고추는 단지병, 역병, 흰가루 등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고, 밀소과,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과실(수박 등)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가려준다.



• [관수]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정치를 가동하거나 수관 상부에 차광막을 씌운다.

- 햇빛 대입(밀소과) 증상이 없으면 과원은 차광막을, 차광막이 없는 과원에서는 햇빛에 노출된 과일은 병지를 씌운다.



• [인삼] 고온기 해가림 시설에 흑색 2중직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축면 울타리를 개방하여 통풍을 유도한다.



(고온기 추가 2중직 차광막 설치)

(축면 울타리 개방으로 통풍유도)

4. 가축

- [소]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직적인 환기로 축사 내부온도를 낮추고, 사료는 소량의 자주 급여하며, 사료조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돼지] 지붕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풀 뿌려주기 등으로 온사 온도 상승을 막아준다. 사료 급여횟수를 늘려주고, 온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한다.
- [닭] 계사 천장 단열을 보강하고, 환기면의 청소 및 상태를 점검한다. 직접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급여하며, 충분한 환기로 체온을 낮춘다.

2 정전대비 시설하우스 관리요령

시설하우스 정전시 전기 구동장치(환기, 양액공급 장치 등)가 멈추면 시설 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함

• 시설하우스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



가솔린 발전기

• 비상용 디젤엔진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구비



디젤 발전기

•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른 아침부터 열 천장과 천장을 열여 정전예 대비하고 밤에 닫을 필요 없는 것이 좋음
- 차광률이 30~50%인 차광막을 설치해 고온피해에 대비
-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높을 경우: 동력 부르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려 주어도 상승 억제

시설하우스 농가는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나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